

자서전, 전기 그리고 소통의 문화

윤평중 | 한신대 철학과 교수

나는 자서전과 전기를 즐겨 읽는다. 사춘기 때 읽은 사르트르의 《말》(범조사)에서,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정액 몇 방울'을 남기고 적시에 사라진 존재로 묘사하는 대목은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내게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준 사르트르의 어법이, 어떤 의미에서 실존주의라든가 자신의 사유체계와 당대 서구문화의 필연적 소산임을 이해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러셀의 《자서전》과 《서양철학사》(대광서림)를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자서전》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그 자체가 훌륭한 서양의 현대 지성사라 할 만하다. 자신이 영국 수상의 손자이기도 한 러셀이 인간적, 지적으로 성장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교분들을 날카로우면서도 해학에 찬 필치로 서술하는 《자서전》은 가히 한편의 지적 파노라마로서 서양지성사의 한 축도를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적 자서전 가운데 백미는 단연 알튀세르의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돌베개)다. 평생의 지적 동반자였던 연상의 부인을 목 졸라 죽였던 그가, 그 사건의 여파로 유폐된 후 사망하기 직전 잠깐 기력을 회복했을 때 쓴 이 책은, 얼음처럼 투명한 지성과 설명할 길 없는 열정, 그리고 신경증적 문제를 함께 가졌던 한 지식인의 비극적 내면 풍경이 아름답고도 섬세한 방식으로 해부된다.

이런 내 읽기 취향의 밑바탕에는, 근원적으로 불가해하고 모순에 가득 찬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작동하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내밀한 내적 풍경을 들여다보고 싶은 '지적 관음증'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인물들의 자서전이나 전기가 결국 '소통의 문화'로 이어지는 통로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작년에 연구년 출장 차 가게 된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부하린과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고 무척 기뻐했다. '영웅적이고 순결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부하린이 스탈린에 의해 숙청된 뒤, 전 세계 기자들이 운집한 공개재판에서 혁명의 책임을 자백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그가 스탈린에게 남긴 40여편의 편지에서 그 사정을 비로소 짐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 때도 변절하지 않았던 박헌영이 6·25전쟁 이후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면서, 공개재판에서 미제(美帝)의 스파이임을 자백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아쉬운 대조가 아닐 수 없다.

사소한 것조차 다 기록으로 남기고, 업적이나 공로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나 잘못까지도 정제된 언어로 반추해 출판하는 것이 큰 흐름으로 정착된 '자서전/전기 문화' 안에서는 한 인간과 그의 행적, 그리고 그 인물이 관여해서 축조한 당대 역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내밀한 개인적 삶들이 서로 이어지고 교차함으로써 거대한 역사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서전/전기 문화'가 곧 '소통의 문화'를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훌륭한 자서전이나 전기를 통해, 우리는 한 인간과 그 사회, 그리고 역사와 직접 만나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세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행복한 책읽기'의 경험은 결국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게 만든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주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i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